



## 아름다운 비상(飛上)의 시작

### (주)대우건설

**정** 해년 새해가 밝았다. 작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도약을 위한 변화와 변혁의 시기였다.

그 첫 번째로 대우건설은 창립 33년 만에 국내 건설 공사 시공 능력 1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이는 다른 대형 건설사들과는 달리 그룹사의 지원 없이 이룩한 것이기에 더욱 뜻깊은 일이라 하겠다.

두 번째로는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만남이라 하겠다.

1999년 IMF를 거치면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대우건설은 그룹에서 분리되어 워크아웃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홀로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성장한다는 것은 많은 한계가 예견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시점에 대우건설과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만남은 비상의 시작이라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금호아시아나 그룹과 대우건설이 만난 첫 해인 2007년도에 우리 그룹은 화두를 '아름다운 비상(飛上)'으로 삼았다.

이는 아름다운 기업으로의 비상을 의미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아름다운 기업이 되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

이제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 간 사안에 따라서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국내 1위의 유지는 물론 멀지 않은 장래에 세계 10대 건설 기업으로 비상할 것이다.

#### 신월성 1,2호기 주설비공사

신월성 1,2호기 주설비 공사는 2003년 7월에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인허가 문제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2005년 9월에야 산자부로부터 실시 계획 승인을 득하여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다.

이후 작년에는 부지 정지 공사를 완료하고 해상 구조물 공사 및 기타 부대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중에 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약 7% 정도로 토목 공사는 해상 구조물 축조 공사, 심층 취·배수 공사를 수행중이며, 콘크리트 및 골재 생산 시설을 설치 운영중에 있다.

건축 공사는 본관 건물 및 구조물 신축 공사를 위하여 각종 가설 건물을 건립중에 있다.

특히 올해에는 본관 기초 굴착 공사를 비롯하여 원자로 건물 기초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계획되어 있고, 기전 분야에서도 초기 작업을 수행할 계획으로 있어 신월성 1,2호기 현장은 그 어느 해보다도 중요하고도 바쁜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초기 토목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육상의 부지 정지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었으며, 해상의 방파호안 공사 및



대우건설 C이점등식. 정해년 새해 대우건설은 이제 아름다운 비상을 시작한다. 새롭게 바뀐 C는 고객과 함께 아름다운 미래로 비상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금호아시아나 그룹과 대우건설의 의지를 형상화한 것이다.

심층 취·배수 공사를 본격적으로 수행중에 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건설 공사에 최초로 적용된 심층 취·배수 침매함 설치 공사는 당사에서 시공중인 거가대교 침매 터널 공사와 함께 우리 회사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현장의 임직원들은 심층 취·배수 공사에서 침매함 설치 공법의 꾸준한 개선 및 기자재 국산화로 작업 안전성 향상, 공기 단축, 건설 비용 절감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 중에 있으며, 이는 향후 지어질 원자력발전소의 경쟁력 제고에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회사는 발주처, 경주시와 공동으로 각종 홍보 수단을 사용하여 본 사업에 지역 업체 및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지역 주민 현장 우선 채용, 발전소 주변 상가 활성화, 지역 봉사 활동 및 각종 행사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 사회와 하나가 되는 공동체적 사명감을 가지고 공사에 임하고 있다.

작년은 현장 공사 이외에도 어려움이 많은 한해였다.

2005년 11월 국책 사업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가 현장 인근으로 유치 확정되었으나, 한수원 본사 이전 부지 확정 문제로

지역 사회 간 이해 갈등이 고조되었고, 이로 인해 월성원자력발전소 정·후문 주변에서의 각종 집회로 작업 차량 진출입 방해, 작업 중단 요구 등의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사업장 부지 축소에 따른 굴착 토공량 감소, 암유용량 및 사토장 감소, 작업 부지 협소 등의 직접적인 피해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장의 임직원은 일치 단결하여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다.

현장의 임직원들은 올 한해에도 시공 능력 평가 1위 업체의 위상에

결맞게 최고의 기술력과 사업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신월성원자력 1,2호기 주설비 공사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월성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공사**

본 공사는 국내 최초 설비로서 그 기능은 월성 원자력발전소에서 감속재 및 냉각재로 사용하고 있는 중수 속의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를 추출하여 중수의 재활용과 방사성물질 배출의 근원적인 발생 원인을 차단함으로써 발전소 종사자들에 대한 방사선 피폭 및 외부 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하여 원자력 발전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증대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설비로서 추출된 삼중수소는 핵융합 실험 및 핵광 물질 등 경제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설비이다.

원자력발전소에서는 공해 물질인 삼중수소를 제거하고, 뽑아낸 물질은 유용한 자원으로 쓰일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 프로젝트이다.

또한 핵융합 원료인 삼중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자원 제공 국가로서 ITER에 당당하게 가입하게 되어 국위를 선양시킨 일은 큰 보너스인 셈이다.

이에 성공적인 준공 및 완전한 설비로 탄생시키기 위해 현장의 임직원은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후대에 두고두고 자랑거리가 되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다.



심층 취·배수 공사. 국내 원전 최초로 건설되는 침매 터널 공사로서 태풍 등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기술면에서도 국내 선도적 회사임이 입증되었다.

**세라믹 시설 증축 공사**

세라믹 시설이란 원자력발전소 상업 운전시 사용되는 원자력 연료를 생산하는 공장을 말한다.

회사는 기존 세라믹 시설의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증축 공장을 한전 원자력연료(주)에서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공장 휴지로 인한 긴급 공사를 수행하면서 좁은 부지, 기존 건물과의 간섭, 위험한 작업에 따른 안전 문제, 그리고 방사선 관리 구역 출입 및 방사능 작업자 관리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장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토의하여 작업 방법을 개선하고 뒤쳐진 공정을 만회하기 위하여 야간 및 철야 작업을 강행한 결과 공사를 적기에 수행할 수 있었다.

올해에는 보다 복잡한 공종인 기

계 및 계장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작년보다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공사에 대한 열의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잡고 사전 준비한다면 최선의 성과를 얻을 것이라 확신한다.

**대만 용문원전 건설 공사**

회사는 1998년부터 대만 현지 업체가 시공중인 대만 용문원전 건설 공사에 기술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작년에는 2호기 원자로를 설치 및 ASME 재인증이 있었으며 올해는 원자로 내부의 기계 및 배관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현장에 전문가가 투입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발주될 공사에도 참여 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대만 용문원전 현장 전경. 대우건설은 해외 원전 시장에 국내 최초로 진출한 건설 회사로서 금년에는 해외 원전 시장의 추가 수주를 간절히 희망해 본다.

### 신규 원자력 사업

대우건설은 앞서 언급한 진행 중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은 물론 올해 계약 예정인 신고리 원자력 3,4 호기 및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등 대규모 사업 수주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현재 핵융합 발전과 같은 근본적인 대체 에너지원이 개발되기 전까지 화석 연료를 대체할 에너지는 원자력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따라서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 등 원전 선진국들은 원전 수명 연장을 승인하거나 추진중에 있다.

이에 회사는 국내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 및 성능 개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또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원전을 최초로 도입 추진중이거나 원전을 건설중인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원전 수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17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원전 건설을 추진중인 베트남, 2016년 최초의 원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등 주요 수출 대상국을 중심으로 한전 및 한수원을 포함한 국내외 관련사와 함께 신규 진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맺음말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대우건설은 2007년 화두를 '아름다운 비상(飛上)'으로 삼았다. 올해는 국내

및 해외 원자력 사업이 다시 한번 비상하는 한해가 되기를 희망한다.

대우건설이 국내외에서 추진하는 원자력 사업이 다시 활성화되어 작게는 회사에 기여하고 크게는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현재 세계 시장 환경을 살펴보면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기업 환경 또한 불투명한 실정이지만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도전 정신으로 무장된 우리에게 불가능이란 없다고 확신한다(It's Possible!).

대우건설은 이제 국내 1위 건설 회사가 되었다. 머지않은 장래에 세계 10대 건설 기업에 대우건설이 있을 것이다.

그 초석을 만드는 일이 올 정해년 새해에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